

ISSUE ANALYSIS

제 8호 [2025. 7. 15.]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방안

이지훈
외교안보연구센터

www.kpiri.co.kr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방안

이지훈

외교안보연구센터

글로벌 안보 지형은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협력으로 인해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초기에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연대로 전환되어 기존의 글로벌 안보 틀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탄약과 병력을 시급히 조달해야 하는 상황과 북한이 식량, 에너지,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이 관계는 단순한 거래적 교환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축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당초 실용적인 거래로 인식되었으나, 양국 지도자들의 발언과 행동은 더욱 심오한 관계를 시사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며, 양국이 “동맹 수준에 부합하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더 큰 전략적, 기술적 협력”을 촉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심지어 양국 관계를 “진정한 전우애”로 묘사하며, 이 협력을 “역사적인 동맹”으로 지칭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언론 보도만을 바탕으로 북한-러시아 협력의 심화된 군사, 외교, 경제적 차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즉각적인 영향, 북한 군사 능력에 대한 장기적 함의,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과 유엔 제재 체제의 무결성에 제기되는 광범위한 도전 과제를 평가할 것이다.

군사 협력의 심화와 전장 영향

다음 표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의 주요 연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관계가 어떻게 빠르게 확대되고 공식화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시 기	주요 협력 내용
2022년 9월	북한-러시아 협력 강화 시작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평양 방문; 양국 지도자, 침략 시 상호 원조를 서약하는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 라브로프 장관도 북한 방문
2024년 11월	최설희 북한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을 서약
2024년 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는 첫 보고서 등장
2025년 3월	러시아,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2025년 봄	로이터 통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전체 포탄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
2025년 5월	다자 보고서,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
2025년 6월	북한, 러시아 사용을 위한 무기 생산 확대를 목표로 희천 근처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제조 시설 건설 시작.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 북한 방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추가 북한 건설 인력 및 지뢰 제거 인력 파견 계획 발표
2025년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북한 방문,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북한 인민군 병사들의 "영웅적 역할"을 치하; 김 위원장, 러시아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재확인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물자와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정보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양국 군사 협력 시작 이래 러시아에 2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달하는 탄약들을 선적했으며, 여기에는 약 1,200만 발의 152mm 포탄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물량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전체 포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24년 러시아 자체의 예상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있어 단순한 보조 공급자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막대한 규모의 군사 지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높여, 북한이 동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포탄 외에도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량의 탄도미사일(KN-23 및 KN-24), 집속탄, 박격포, 그리고 자주포 시스템 (120문의 곡산 자주포, 120문의 다양한 방사포)을 공급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수천 명의 군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24년 말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0,000명에서 12,000명의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최전선에서 공격 부대로 전투 작전에 참여했다. 올해 초에는 3,000명에서 4,000명의 병력이 추가로 파견되었으며, '25년 여름까지 수천 명의 군사 전문가(공병 및 지뢰 제거 전문가 포함)가 쿠르스크 지역의 전쟁 피해 복구 및 지뢰 제거 작업을 돕기 위해 파견될 계획이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양국이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조선인민군 병사들의 영웅적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자국의 이익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 협력을 통해 추정되는 20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첨단 군사 기술과 귀중한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이익적 관계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높여, 북한이 동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전략이 이제 북한의 핵심적인 기여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국제 제재 및 비확산 노력을 더욱 약화시키면서 점점 더 정교한 군사적, 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심적인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군사 능력을 현대화하는 데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 자금 지원, 첨단 방공 장비, 대공 미사일,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 제공이 포함된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례 없는 현대전 경험”을 얻었으며, 이는 기존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⁷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공격 드론 개발에 대한 모스크바의 지원 보고도 있다. 위성, 핵잠수함,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민감한 군사 기술 이전, 심지어 새로운 탄약 공동 생산 협정에 대한 우려도 만연하다.

북한은 단순히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귀중한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역량(드론)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하며 개발하고 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참여한 것은 현대전 전술과 장비 성능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제공하여, 신속한 적응과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미사일 정확도 향상, 첨단 전자전, 드론 능력 등을 갖춘 더욱 강력한 북한군은 한국, 일본 및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크게 높이고 이는 지역 방어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오판 또는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러시아가 직접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기존 제재 체제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적 연대 강화와 경제적 상호 이익

북-러 간의 심화되는 협력은 빈번한 고위급 외교 교류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나며, 이는 견고한 정치적 연대를 시사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24년 6월(푸틴 대통령 동반)과 2025년 7월 북한 방문, 그리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의 2025년 6월 방문은 이러한 교류의 강도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모든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할” 것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에 화답하여 양국 간의 “진정한 전우애”를 치하하고, 쿠르스크에서의 조선인민군의 역할을 기념하며 공동 노력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 계획을 밝혔다.

특히 중요한 발전은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문 시 체결된 “어느 한쪽이 침략에 직면할 경우 상호 원조를 서약하는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다. 이 조약은 이제 양국 동맹의 “초석”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며, 양국은 “정의를 위한 공동 투쟁”을 영속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자위적 목적으로 “이해하고” 그 “염원”을 존중한다고 밝혀, 이전의 비확산 약속에서 크게 벗어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움직임은 양국 정권이 자신들의 행동을 서방의 침략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미국과 그 동맹국을 불안정 세력으로 묘사하려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유된 서사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양국의 협력을 정당화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비난을 회피하려는 다목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된 서사는 국제사회가 양국의 행동에 대해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며, 일시적인 지정학적 연대가 아닌 장기적인 이념적 투쟁을 시사하여 새로운 냉전과 같은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군사적 유대 외에도 양국 파트너십은 다양한 비군사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양자 무역, 물류, 교육, 농업, 관광, 스포츠 등이 포함되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지침 아래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상당한 이득을 보았는데, 협력 강화가 시작된 이래 주로 무기 판매와 군사 서비스를 통해 2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외화 유입은 북한의 국방 개발을 촉진하고,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중요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양국 간의 새로운 교량 건설('26년 완공 예정)이 대표적이다. 이 교량은 기존 핫산-라진 철도와 보완되어 물류 연결성과 무역 역량을 강화하여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북한 생산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광 또한 중요한 초점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에 대한 러시아 관광객 방문 증가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며, 항공 연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인적 교류 외교와 학술 교류 또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사 협력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이러한 비군사 부문(무역, 물류, 교육, 농업, 관광, 스포츠)은 “대부분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왔지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의 지침 아래 양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군사적 유대의 발전은 동맹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야는 즉각적인 군사 거래를 넘어 더 깊은 상호 의존성을 창출하여, 우크라이나전의 즉각적인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들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더 넓은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로 교량은 더 넓은 무역과 이동을 촉진하는 영구적인 연결성 투자를 나타내며, 더 깊은 경제적, 물류적 통합을 향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러시아에게 이러한 프로젝트는 “저비용”이며 “국제적 비난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전한 통로가 된다. 이는 러시아-북한 연대가 단순히 일시적인 전시 편의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임을 시사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근본적인 인프라와 인적 교류가 강화되어 동맹의 궤적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고, 더욱 확고하고 자립적인 블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대응 과제

북-러 협력 심화의 가장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함의는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해체하려는 러시아의 체계적인 노력이다. '25년 3월 28일, 러시아는 14년간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PoE)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조치는 PoE의 임기를 사실상 종료시켜, 회원국들이 제재 준수를 감시하고 허점을 막을 제 3자 메커니즘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 거부권 행사는 러시아가 기존 제재 준수를 중단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데 이어, 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적인 전략의 세 번째 단계로 간주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오랜 비확산 규범을 희생할 의지를 보여준다. PoE의 부재는 제재가 “좀비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재가 업데이트되지도 효과적으로 감시되지도 않아, 미국,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개별 국가들이 정보 공유와 비확산 노력을 조율하는데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계산된 고도의 전략적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고 시행하는 주요 국제 메커니즘을 제거함으로써, 러시아는 제재 위반의 전모에 대해 국제사회의 눈을 가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부과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 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필요성과 즉각적인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오랜 비확산 규범을 희생하려는 의지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또한 러시아가 기존 유엔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도전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을 보여준다.

확대되는 북-러 파트너십은 여러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첨단 군사 기술(위성, 핵잠수함, ICBM,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드론) 이전은 북한의 군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지역 방어를 복잡하게 만들고 분쟁 위험을 증가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상당한 군사 지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서방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¹ 유럽 국가가 아닌 국가가 유럽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NATO의 전략 계획과 글로벌 비확산 의제에 도전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도화된 동맹”의 출현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며, 이 모델이 다른 제재 대상 또는 수정주의 정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여 글로벌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동아시아와 유럽의 서방 동맹 안보 틀에 도전한다.

이는 서방 주도의 질서 밖에 있는 국가들이 자립적인 안보 및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국제 규범과 제재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다. 이는 글로벌 안정에 대한 심각한 장기적 위협을 제기한다. 이는 여러 개의 상호 연결된 “저항의 축” 블록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각 블록은 자체적인 내부 공급망과 안보 보장을 갖추게 되어, 국제사회가 전통적인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분쟁, 핵 확산 또는 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와 글로벌 협력 감소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심화되는 전략적 협력은 심오하고 광범위한 함의를 지닌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이다. 이는 비확산 규범의 침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효과성 약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위협 악화로 특징지어지는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나타낸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 동맹의 포괄적인 성격(즉각적인 군사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외교, 경제, 기술 통합을 포함하는)을 인식해야 한다.

정책적 제언

조율된 정보 및 비확산 노력 강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고려할 때,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들은 불법적인 무기 및 기술 이전을 추적하고 방해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확산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

제재 집행 재활성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부에서 다자 제재 집행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북-러 공급망 및 그들의 금융 조력자와 관련된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략적 소통 및 서사 대응

북-러 동맹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반서방 수사에 대응하며, 그들의 불안정화 행동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통일된 서사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 억지력 강화

동북아시아의 경우, 러시아의 지원으로 대담해진 북한의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삼자 안보 협력(합동 군사 훈련 및 미사일 방어 능력 포함)을 강화해야 한다.

외교적 통로 신중하게 모색

도전적이지만, 긴장을 완화하거나 이 동맹의 근본적인 동인을 다룰 수 있는 잠재적이지만 좁은 외교적 통로를 유지하고 모색하되,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끝//

이 문건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한반도 문제 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자료

1. North Korea's Military Supplies to Russia: Intel Assessment - SpecialEurasia
2. Timeline of North Korea-Russia Cooperation Since 2022 - CSIS Beyond Parallel
3. 'Identical views on all strategic issues': Russia warns US against anti-North Korea alliance; Kim Jong Un backs war in Ukraine
4. Russia Hails North Korean Military for Kursk Victory, Lavrov Says Brotherhood In Arms With Kim
5. Russian foreign minister to visit North Korea this week in latest sign of expanding ties
6. North Korea-Russia People-to-People Exchanges as a Tool for Sustained Dialogue
7. North Korea is playing a key role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 Atlantic Council
8. Russia's Veto: Dismembering the UN Sanctions Regime on North Korea - CSIS
9. Russia warns U.S., South Korea and Japan against forming security alliance targeting North Korea | News, Sports, Jobs - The Times Leader
10. Press release o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meeting with President of the State Affairs of the DPRK Kim Jong-un
11. North Korea sends over 12 million artillery shells and thousands of troops to Russia
12. North Korea Sends Arms to Russia's Putin to Boost Ukraine Campaign: Report! Firstpost America | N18G
13. Russia Just Guttled the UN Panel of Experts on North Korea - What Now? - RUSI